



박인비가 28일 대만에서 열린 선라이즈 LPGA 대만 챔피언십 4라운드 2번 홀에서 티샷을 날린 뒤 공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인비 '통한의 14번 홀'

대만오픈, 짧은 파퍼트 실패... 페테르센에 역전패

박인비(24)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의 기세에 밀려 시즌 세번째 우승을 놓쳤다. 박인비는 28일 대만 타이완 양메이의 선라이즈 골프장(파72·6390야드)에서 열린 선라이즈 LPGA 대만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보기 2개를 적어내고 버디는 1개에 그쳐 1타를 잃었다. 마지막날 단독 선두로 출발한 박인비는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쳐 3타를 줄인 페테르센(19언더파 269타)에게 우승컵을 넘겨줬다. 페테르센은 2번 타에서 우승 경장을 벌였다. 박인비는 28일 대만 타이완 양메이의 선라이즈 골프장(파72·6390야드)에서 열린 선라이즈 LPGA 대만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보기 2개를 적어내고 버디는 1개에 그쳐 1타를 잃었다. 마지막날 단독 선두로 출발한 박인비는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쳐 3타를 줄인 페테르센(19언더파 269타)에게 우승컵을 넘겨줬다. 페테르센은 2번 타에서 우승 경장을 벌였다. 박인비는 28일 대만 타이완 양메이의 선라이즈 골프장(파72·6390야드)에서 열린 선라이즈 LPGA 대만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보기 2개를 적어내고 버디는 1개에 그쳐 1타를 잃었다. 마지막날 단독 선두로 출발한 박인비는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쳐 3타를 줄인 페테르센(19언더파 269타)에게 우승컵을 넘겨줬다. 페테르센은 2번 타에서 우승 경장을 벌였다.

니(대만)는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3위에 올랐다. 유소연(22·한화)은 5위(10언더파 278타), 최나연(25·SK텔레콤)은 공동 8위(8언더파 280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생활체육대회 풍성한 마무리

광주·전남 생활체육대회 풍성한 마무리가 진행됐다. 제24회 광주시장기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가 지난 27일 광주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시생활체육회 주최, 5개구 생활체육회·시종목별연합회 주관, 광주시 후원으로 열린 한마음 축제에는 6000여명의 동호인이 참여해 축구, 정구 배드민턴 등 일일 13개 종목에서 열린 경장을 벌였다. 개막식에서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포포먼스를 선보인 동구가 입장상을 받았고 광산구가 종합우승, 서구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 동구는 질서상, 남구와 북구는 각각 모범상과 화합상을 수상했다. 제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도 27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 폐회식을 끝으로 3일간의 열전을 마무리 했다. 22개 시·군과 서울시생활체육회 동호인 5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해남과 장흥, 장성이 각각 입장상 1~3위에 자리했다. 장려상은 곡성과 화순, 영암이 차지했고 스포츠 7330상은 여수시가 받았다. 화합상은 완도군이 수상했으며 질서상은 진도군, 갈무상은 함평군, 윤림상은 광양시, 우수연합회상은 축구연합회가 수상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장타소녀 장하나 '메이저퀸'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우승

장하나(20·KT)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총상금 7억원)에서 장 하나는 28일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하늘코스(파72·664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1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타를 잃었지만, 최종합계 5언더파 211타를 써내 김하늘(23·비씨카드) 등 2위 그룹을 한 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2009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2010년 시드전을 거쳐 지난해 정규투어에 진출한 장 하나는 메이저대회에서 감격스런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우승상금 1억4000만원에 손에 넣었다. 상금 순위는 25위에서 8위(2억5329만원)까지 끌어올렸다. 전날 강한 비바람 때문에 경기가 취소돼 대회가 3라운드(54홀)로 축소된 데 이어 이날은 코스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많은 선수가 고전했다. 3라운드에서 언더파 스코어를 써낸 선수 가 65명 중 4명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타를 부려 앞세운 장하나가 최후의 승자로 웃었다.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였던 양혜운(20·LIG손해보험)은 4~7번홀에서 연속 보기를 범하는 등 5타를 잃고 김하늘, 김현지(24·LIG손해보험)와 공동 2위(4언더파 212타)에 올라 시즌 2승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김하늘은 이 대회에서 상금 5716만원을 추가, 올 시즌 상금 4억2288만원으로 허윤경(22·현대스위스)과 김자영(21·넵스)을 제치고 공동 선두로 뛰어올라 2년 연속 상금왕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 대회 전까지 상금 1위를 달리던 허윤경



28일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하늘코스(파72·6645야드)에서 막을 내린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최종합계 5언더파 211타로 우승을 차지한 장하나가 우승컵에 입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은 이정민(20·KT) 김혜운(23·비씨카드), 김해림(23·넵스)과 공동 5위(3언더파 213타)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장타자 와트니 CIMB 클래식 우승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장타자 와트니(미국)가 '꿈의 타수 59타'를 놓쳤지만 CIMB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와트니는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마인드 리조트 & 골프클럽(파71·691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17번홀까지 11타를 줄이며 '59타'를 노렸지만 18번홀(파4)에서 빼어난 보기를 적어내 10언더파 61타를 쳤다. 함께 22언더파 262타로 정상에 오른 와트니는 상금 130만달러를 받았다. 전날 공동 선두였던 로버트 캐리거스와 보만 켈트(이상 미국)는 합계 21언더파 263타를 쳐 공동 2위로 떨어졌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마지막날 8타를 줄이며 와트니를 추격했지만 합계 19언더파 265타로 공동 4위에 머물렀다. 우즈는 1~3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낚는 등 보기 없이 버디 8개를 쓸어담는 무서운 기세로 질주했지만 와트니의 상승세를 따라 잡지는 못했다. 전날에만 5타를 줄인 와트니는 11~13번

홀, 15~17번홀에서 각각 3개씩 연속 버디를 잡아 59타에 바짝 다가섰다. 하지만 18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하고 러프에 빠뜨린 뒤 1타를 잃고 말았다. 역대 PGA 투어에서 59타 기록은 다섯차례 나왔다. 가장 최근에는 슈투어트 애블비(호주)가 2010년 그린브라이어 클래식 4라운드에서 59타를 기록했다. 마지막날 4타를 줄인 재미교포 케빈 나(29·타이틀리스트)는 공동 10위(15언더파 269타), 노승일(21·타이틀리스트)은 공동 14위(14언더파 270타)로 대회를 마쳤다. 아시아투어와 PGA 투어가 공동 주관한 이 대회의 상금은 아시아투어 상금만큼에만 반영된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해의 및 섬은 개개가 불가합니다. (예약가능)

10월 30일(화)
▲광주산행스케치 10월30일(화) 지리산 피아골 단풍, 영주체육관 07:30, 동아병원 07:40, 광주역 07:50, 문에후문 08:00
*다음카페:광주산행스케치 ☎ 011 634 0776

10월 31일(수)
▲광주정읍산악회 10월31일(수) 전남 영암 월출산, 07:50 백운동 로타리 출발 08:00 교원공회회관 08:10 문에예술회관 후문 08:20 동광주IC입구
*다음카페:광주정읍산악회 ☎ 011 646 3450, 011 259 0284

11월 1일(목)
▲광주서석산악회 11월1일(목) 총남공주 도덕봉, 근수봉, 문현현대사부인과 앞 06:30, 영주시거리

고현정과 함께하는
Re: NK 화장품에서 뷰티플래너를 모집합니다

- 20~60세 미만의 활동적인 여성분들은
- 본사직영 1호 대리점만의 확실하고 전문적인 지원혜택을 누리보세요!!

리엔케이 화장품 광주상무지사
(상무지구 BYC 맞은편 오션빌딩 7F)
062-376-7171 · 011-633-5747

상속한정승인 공고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년2단1676

사 망 자: 최정철(490817-1665818)
최후주소: 광주 북구 군왕로55-3(두암동)
등록기준지: 전남 진도군 의신면 천취리113

위 망 최정철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해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재권 또는 승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2년 10월 29일

공 고 인 : 박성재, 최숙진, 최은자
한정승인수리일 : 2012년 10월 23일
공고기간 : 2012. 10. 29 ~ 2012. 12. 28
신 고 처 : 박성재(010-9484-6128)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들에관한법률 제27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고하오니 신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변분에 의거 개장신고의 통지 임의 개장을 진행 하오니 신고하십시오.

1. 분묘소재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9-1번지
2. 분묘주소: 1기
3. 개장사유: 개발행위로 인한
4. 개장방법: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공공자가 개장 신고 후 신고지 임의개장
-유연분묘: 신고자나 관리인 신고 후 개장
5. 개장장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9-1번지
6. 공고기간: 2012. 9. 26~2012. 12. 26(3개월)
7. 신고인: 임 등 유
8. 신고료: 017-602-0693
9. 기타: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공고에 갈음함.
2012년 10월 29일

상속한정승인 공고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년2단1683

사 망 자: 서인수(590808-1637217)
최후주소: 광주 북구 운신북길150-4(운암동)
등록기준지: 전남 고흥군 포두면 남촌리333

위 망 서인수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해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재권 또는 승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2년 10월 29일

공 고 인 : 서형우
한정승인수리일 : 2012년 10월 22일
공고기간 : 2012. 10. 29 ~ 2012. 12. 28
신 고 처 : 서형우(010-5793-1541)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임종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 참가신청: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 참가특전: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일곱번째 산행 11월 23일(금) / 천관산
*일정 및 산행투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주)밀레 마케팅부서 (02-3153-3143, 4)
주최 | MILLET | 주관 | Mtour
후원 | 광주일보사

movieliac

영화가 살아나는 곳
MEGABOX

광주/전라지역 콜롬버스 상무
광주/전라지역 콜롬버스 하남

10개 상영관, 1.65억 규모의 고품격 멀티플렉스영화관
넓고 편안한 좌석, 베이비룸 설치(8.3.10년)
편리하고 넓은 주차장, VIP 사사화 등 다양한 편의 시설
전남 서부권 교통의 메카
멀티플렉스 내 비치

영화가 살아나는 곳
MEGABOX

광주/전라지역 콜롬버스 상무

10개 상영관, 1.65억 규모의 고품격 멀티플렉스영화관
넓고 편안한 좌석, 베이비룸 설치(8.3.10년)
편리하고 넓은 주차장, VIP 사사화 등 다양한 편의 시설
전남 서부권 교통의 메카
멀티플렉스 내 비치

영화가 살아나는 곳
MEGABOX

광주/전라지역 콜롬버스 하남

10개 상영관, 1.65억 규모의 고품격 멀티플렉스영화관
넓고 편안한 좌석, 베이비룸 설치(8.3.10년)
편리하고 넓은 주차장, VIP 사사화 등 다양한 편의 시설
전남 서부권 교통의 메카
멀티플렉스 내 비치